

--6화 시작

여기는 박 군이 한 때 근무했던 다국적 IT기업의 신제품 발표회장. 당연히 가장 최근 제품인 EDCS 6.0과 SolutionX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지사장: 에...제가 이 회사의 CEO자리를 맡은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해 보았습니다만...이 회사는 다른 다국적 기업에 비해 뭔가 남다른 점이 있더군요.

기자 1: 저 사람이 새로 부임한 지사장이야?

기자 2: 어, 맞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뭐...얼마 안 가 찢리겠지 뭐.

기자 1: 하긴...저 회사는 한국 지사장을 주기적으로 갈아치우는 걸로 유명하니깐...

한국 지사장: 그것은 직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정말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남다른 열정이 느껴지더군요.

기자 2: 참, 나...하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직원들의 열정이 남다르다'는 말 밖에 안 하는구만...

기자 1: 지사장이 솔직히 할 말이 뭐가 있어...글로벌 IT기업들의 한국 지사들 하는 일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

기자 2: 그치...'한글화 노가다'하고 '마케팅' 이거 2개 밖에 안 하는데...핵심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

기자 1: 그러니까 막상 공식행사에서도 '직원들이 사기가 높다' 이런 말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지...그렇다고 '핵심적인 경영은 본사에서 하기 땀에 우린 아무 것도 몰러유' 이럴 수도 없잖아...

기자 2: 히히히...맞어, 맞아...

한국 지사장: EDCS 6.0과 기타 여러가지 저희 제품이 통합된 SolutionX는 고객사에게 최상의 경영 효율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 1: 근데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게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다며?

기자 2: 저 회사 제품이 솔직히 90년대 말에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어. 근데 최근에는 너무 문어발식 경영을 해서 제품의 질이 많이 나빠졌지. 내가 IT 기자 생활 20년 했는데 문어발 확장하는 회사 치고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경우를 본 적이 없지!

기자 1: 근데 SolutionX가 어떤 제조업 대기업에 도입될 거란 소문이 있던데...벌써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던데?

기자 2: 어이쿠, 그렇게 빨리 도입이 될 줄이야...거의 고객사를 베타 테스터로 써 먹는 수준이구만...걱정 된다, 걱정 되...

한국 지사장: 개발 초기에는 많은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했으나 해외 기술진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 모든 기술적인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저희 SolutionX를 어서 빨리 도입하시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는 박 군과 약간 친해진 외국인 여성 2명이 근무하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Person B: Hey, I downloaded some Korean dramas. But I cannot see Korean subtitles. What should I do?

Person A: Wait, I'll send a cell phone message to Park (리눅스에서 드라마 볼 때 어떻게 하면 자막 나오게 할 수 있냐고 박 군에게 문자 메시지 보냄).

박 군: (신세지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인터넷 하면서 놀다가 문자 메시지를 받는 박 군) 어? 문자 왔네? (문자에 'What should I do to let Korean subtitles displayed on Linux?'라고 쓰여 있음) 아하...애네들 사무실에서 리눅스로 드라마 보고 있구나...ㅋㅋㅋ 답장은 메일로 보내야지. 후후...(리눅스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설정에서 자막 옵션 정하는 부분을 스크린 샷을 뜨는 박 군)

Person A: (박 군으로부터 'Check your mailbox'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음) OK, let me see... (새로운 메일 한 통에 박 군이 뜬 스샷이 첨부 파일로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함) Hey, look at this!

Person B: (B가 A 자리로 와서 스샷을 확인한다). Oh, I got it! (스샷대로 했더니 리눅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자막이 켜진 채로 한국 드라마가 재생됨)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제조업 대기업의 회의실. 박 군의 라이벌인 1인 회사 CEO와 제조업 회사 사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1인 회사 CEO: 제가 알기로는, 박 군인가 그 친구 오픈소스 관련 회사를 차렸다면서요?

CEO 3: 어, 맞아. 근데 그건 왜 묻지?

1인 회사 CEO: 그 친구도 보나마나 리눅스인지 뭔지 그런 거 취급하는 장사를 하겠군요. 그 친구가 혹시 SolutionX에 대해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놔도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하하...

CEO 3: 아니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도 있지. 그런 건 자네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닐텐데?

1인 회사 CEO: SolutionX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제품들은 대부분 소스 코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박 군 같은 오픈소스 주의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유명 제품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친구도 근거없이 저희 제품을 깎아내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CEO 3: 음, 그 친구의 의견을 참고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걸세. 자네는 자네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네.

1인 회사 CEO: 아, 네...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미팅 때 뵙겠습니다.

다시 박 군이 신세지고 있는 중소기업 사무실. 박 군이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SolutionX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하는 박 군. 미국 IT언론에서 작성한 영문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는 'SolutionX에 매우 강력한 끼워팔기 시도의 증거들이 존재하며, 당분간은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다.

박 군: 역시...끼워팔기가 맞아. SolutionX에는 EDCS 6.0도 들어있지만 그 회사의 다른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어있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함께 들어있어.

박 군 친구: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박 군: 내가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프로젝트 말야. 아무래도 내가 다녔던 다국적 기업에서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거 같아. 과거에 실패했던 제품들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팔아치우려는 거 같아.

박 군 친구: 아-.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납품한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묶어서 납품되면 하나하나 개별 구입하는 거 보다 싸기도 하고 장점도 약간은 있지 않아?

박 군: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냐. 패키지에 들어간 각각의 소프트웨어들끼리 서로 연동이 더 잘 되는 장점도 있지. 왜냐고?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박 군 친구: 근데 뭐가 불만이야?

박 군: 이렇게 되면 기업의 전체적인 IT솔루션이 어느 한 기업에 좌지우지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 특히 이 회사의 SolutionX는 그 안에 들어간 하나하나의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너무나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느 하나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도 없어.

박 군 친구: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SolutionX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잖아?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 같지 않아?

박 군: 당장 올해에는 문제가 없을 지도 모르지. 그리고 내년에도 문제가 없을 지도 모르지. 근데 먼 미래에 SolutionX 전체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박 군 친구: 그럼 어떻게 되는데?

박 군: 그거 하나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완전히 도입한 회사만 바보 되는 거야. 그냥 타이타닉이 물 속으로 꼬르륵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박 군 친구: 아니 그렇게 되도 SolutionX 개발한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거 아냐. ‘다음 버전에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냐?

박 군: 아, 답답해...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니까 그렇지...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공장 전체가 스톱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해도...SolutionX 전체에서 문제 생긴 부분만 다른 회사 걸로 바꾸지도 못하고 차기 버전 나올 때까지 계속 멍청하게 기다려야만 되는 거야, 2년을 기다려야 될 지 3년을 기다려야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는 거야...그게 바람직한 걸로 보여?

박 군 친구: 아오...모르겠다. 내 생각엔...니가 그 회사 다니다가 안 좋게 끝났던 것 때문에 너무 그 회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거 같아.

박 군: 아오! 아니라니깐...아, 나 사장님한테 당장 전화 좀 해야지...(CEO 3에게 전화 거는 박 군)

CEO 3: 여보세요? 아, 박 군? 그래, 무슨 일인가?

박 군: 제 생각엔, SolutionX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SolutionX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 지나치게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CEO 3: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허허...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 사

장님...

박 군: 나중에 전체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그 부분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를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처음부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평생 자기네 제품만 쓰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교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 거예요...

CEO 3: 음...일단 자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네...나도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네...

박 군: 아, 예...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미팅 때 뵙겠습니다.

CEO 3: 그래, 수고하고...(전화 끊음)

박 군: (A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는 박 군) 헉...뭐야, 이거...

박 군 친구: 왜? 누군데?

박 군: 한팀장네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여잔데, 주몽이 실존인물 맞냐고 묻네...

박 군 친구: 그 여자랑 꽤 친해졌나보다? 둘이 몇 번 만났나보네?

박 군: 아이, 뭘 또 둘이 만나...그 여자랑 나랑 또 다른 사람이랑 셋이서 만난 적 밖에 없어...

박 군 친구: 암튼 친한 건 맞네.

박 군: 그거야...그렇지...헉, 문자 또 왔다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확인함)

박 군 친구: 이번엔 또 뭐래?

박 군: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도 회사 PC랑 똑같이 만들어 달래.

박 군 친구: 자기 컴퓨터에 리눅스 깔아달란 소리네. (어깨를 탁 치면서) 집으로 부르는 거 보니까 친한 거 맞네, 뭘.

박 군: 아냐, 별로 안 친해...

박 군 친구: 아, 난 남자랑 영화나 보러 가야지...트랜스포머 보기로 했는데...히히히 (자리를 뜨려고 하는 박 군 친구)

박 군: 야!

박 군 친구: 왜?

박 군: 트랜스포머...그거 무슨 요일에 보러 갈 건데? 나도 같이 가...

박 군 친구: 안 되, 나랑 보기로 한 사람이 딱 표를 2장만 샀어. 네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냐.

박 군: 응...알았어.

여기는 김병자가 등록한 연기학원. 모두들 강사의 지시에 따라 기본적인 발성연습을 하고 있다.

강사: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20초 동안 들이마심)...내쉬고(20초 동안 내 쉴)...다시 들이마시고...

남들은 정시에 왔지만 지각해서 늦게 들어오는 김병자.

강사: 자, 지금 오신 분은 이 쪽으로 앉으세요.

김병자: 네...

강사: 아, 김병자씨가 오셨네요. 지금 드라마 하나 하고 계시죠?

김병자: 네, '출생의 비밀'이요 (다른 수강생들이 입을 가리면서 킁킁 댐).

강사: 그 드라마...솔직히 좀 막장 아닙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림)

김병자: 저도 시나리오 좀 맘에 안 드는데...저희 소속사에서 이 드라마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몇가지 좀 있어서...아하하

강사: 아, 네...항상 맘에 쏙 드는 시나리오만 받을 수는 없죠. 내년에는 막장 아닌 드라마에서 뵙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수강생들 와하하 웃음 터뜨림).

김병자: 네...

수강생 1: 저기요, 언니...여기 사인 좀 해 주세요...

수강생 2: 저도요...(사인 해 주는 김병자)

잠시 연기학원의 쉬는 시간. 김병자가 자판기에서 커피 뽑고 있는데 수강생 2명이 후닥닥 와서 친한 척 함.

수강생 1: 어머, 언니...저 정말 팬이에요...저 언니 너무 좋아해요...

김병자: 아, 네...

수강생 2: 그냥 말 놓으세요. 저희 언니보다 어려워요.

김병자: 아...그래요? 그럼...말 놓을께...히히

수강생 2: 언니, 저희 언니 나가는 드라마에 엑스트라 나가면 안 되요?

김병자: 어, 그런 건...내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냐...미안하다...

수강생 1: 학원 실장님이 '출생의 비밀' 보조출연 나갈 사람 말하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못 들었이?

수강생 2: 뭐, 진짜? 지금 실장님 사무실에 계셔?

수강생 1: 지금 말하지 말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얘기 해.

김병자: 근데, 보조출연이...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두번 하는 건 좋은데...거기서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게 좋아...거기서 감독 눈에 띄면 뭐 되는 줄 알고 1년 열두달 그거만 하는 애들 있는데...너무 보기 안 좋더라...

수강생 2: 언니, 보조출연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여?

김병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보조출연을 업으로 삼겠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야.

수강생 1: 그럼 보조출연 2,3번 해 봤으면 다음엔 뭘 해야 되는데요?

김병자: 이 세계가 원래 불확실성이 좀 높아...예를 들어서 배우가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은 1명이나 2명 밖에 안 되. 나머지 98명은 촬영 안 할 때는 다 패스트 푸드점 가서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되.

수강생 2: 어휴...그게 뭐야...우린 여기 학원만 수료하면 바로 드라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김병자: 학원에서 니네한테 그랬어? 이거만 수료하면 드라마 나간다고?

수강생 1: 아니,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분위기가 거의...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만 해 주는 그런 분위기에요. 어두운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요. 100명 중에 1,2명 돈 벌고 나머지는 패스트 푸드점 나간다 그런 얘기 우린 참 들어봐요.

김병자: 너희도 현실을 좀 알아야 되. 이 분야가 잘 풀릴 확률이 그렇게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지금 연기학원 다니는 건 그냥 학창시절의 추억 정도로 간직하고 일단은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니네가 여기 수료하고 드라마에 나갈 확률은 내가 보기엔 0프로야.

수강생 2: 어휴...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수강생 1의 어깨를 두드리며)

강사: 자, 수업 시작합니다아~! (세사람 자판기를 떠나 연습실 쪽으로 걸어 감)

파일럿 프로젝트는 대개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끝난다. SolutionX의 파일럿 프로젝트도 수일만에 후딱 끝났으며 박 군과 박 군 라이벌(스핀 오프 회사 차린 사람), 제조업 대기업 CEO를 비롯 관련 직원 수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군 라이벌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한다.

1인 회사 CEO: (프로젝터에 연결된 노트북의 마우스를 속속 조작해서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고 있음. 노트북 화면이 회의실의 대형 화면에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제대로 동작함)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정해주신 스펙대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CEO 3: 예, 일단...우리 회사에서 제시한 스펙대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했어요.

1인 회사 CEO: 네.

CEO 3: SolutionX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라서 허접한 국산보다 낫겠다 싶기도 한데...

1인 회사 CEO: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CEO 3: 좀 마음에 걸리는 게...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SolutionX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납품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내 친구네는 국산 ERP로 했는데 안에 들어간 구성요소가 몇 개 안 되더라고...근데 SolutionX는 거의 11개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던데 말야...

1인 회사 CEO: 그건 국산 ERP가 기능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SolutionX는 워낙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것도 많은 거죠. 국산 ERP에는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데 저희는 불필요한 것까지 잔뜩 끼워팔기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 군: 그런 문제 맞는 거 같은데...

1인 회사 CEO: (안면에 미소를 머금고) 거 웬만하면 좀 잠자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CEO 3: 박 군은 이번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조언을 해 줄 친구라네. 우리 회사에 장기적으로 납품하고 싶으면 박 군하고도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야.

1인 회사 CEO: 뭐...그, 그거야...아참 근데 박 사장님은 오픈 소스 관련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서요?

박 군: 네. 한국 기업에서 만든 리눅스를 가지고 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1인 회사 CEO: 저희 SolutionX가 이 회사에 납품되면 박 사장님이 이 회사에 리눅스를 못 팔아 먹을까 봐 불안해서 탄지 거시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은 리눅스하고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 군: (약간 발끈해서) 뭘 소리야, 이 사람이...! 나는 이 회사에 본격적으로 뭘 납품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 주는 것 뿐이에요!

1인 회사 CEO: 아, 네 그러시군요. 중요한 건 사장님의 결정이겠죠.

CEO 3: 근데 SolutionX에 들어있는 11개의 제품 중에 말이야,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가능한가?

1인 회사 CEO: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워낙에 서로 연관성이 높아서...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11개의 제품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하나를 교체하게 될 일은 절대 안 생길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군: 별로 안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회사 CEO: (약간 짜증섞인 말투로) 거 웬만하면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어떨지...

CEO 3: 음...

1인 회사 CEO: 어떻게...지금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메일로 통보를 하시겠습니까?

CEO 3: 좀 끼워팔기 같아 보이긴 한데...사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쪽으로 기울거든...아무래도 국산을 도입하라고 하면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야...

1인 회사 CEO: 아, 그러면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CEO 3: 어,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네. 잘 부탁하네.

박 군: (상당히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 박 군) 아, 뵙...아니 저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이 11개나 줄줄이 사탕으로 엮인 걸 사시다니...사장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저거 저 회사에서 과거에 실패했던 제품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방출하는 거라고요!

CEO 3: 너무 걱정하지 말게, 박 군.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국산이나 뻑하면 고장나고 그러지.

1인 회사 CEO: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과 박 군에게 번갈아서 악수를 청함).

박 군: (심드렁한 표정으로 악수함) 아, 예...

집에 들어온 박 군. 소파에 털썩 앉자마자 같은 사무실 여자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박 군 친구: 어떻게 됐어? 오늘 뭐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박 군: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가 예상외로 좋았어. 특별히 에러도 없는 거 같았고...사장님은 도입을 하시기로 했어.

박 군 친구: 그래? 너는 도입에 거의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어? 사장님이 니 의견을 막 무시하고 그러셔?

박 군: 아니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셔. 사장님도 나름대로 내 의견도 참고하고 그 쪽 업체 의견도 참고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야.

박 군 친구: 그렇구나. 한가지 문제에 너무 신경을 집중하지 마. SolutionX는 이제 잊어버리고 니가 원래하던 사업에 집중해.

박 군: 그래, 그게 맞는 거 같다. 그럼 내일 보자.

박 군 친구: 응.

전화 끊고 TV를 켜는 박 군.

박 군: 출생의 비밀 녹화해 놓 거 봐야지...히히

박 군이 TV를 켜 후 TV의 내장 하드디스크에서 ‘출생의 비밀’ 녹화분을 재생시킨다 (박 군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 예약녹화 기능에 의해 자동 녹화된 것임).

드라마 속 등장인물 1 (지난번 에피소드의 등장인물 1하고 관계 없음): 애야, 내가...사실은...사실은...

등장인물 2: 이번엔 또 뭐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요.

등장인물 1: 사실은...내가 니 사돈의 팔촌이란다.

등장인물 2: 뭐, 별로 안 신기하네요...이젠 놀랄 힘도 없어요. 다른 비밀은 뭐 없나요?

등장인물 1: 나...내일 미국 간다.

등장인물 2: 아우, 뭐야...그게 무슨 비밀이라고...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저 갈래요!

등장인물 1: 잠깐!!!

등장인물 2: 뭔데 그래요?

등장인물 1: 네 청바지...지퍼 열렸다.

등장인물 2: 어? 정말요? (고개 숙여 지퍼를 확인함)

등장인물 1: 바보 같은 녀석. 그런 것에 속다니...

등장인물 2: 아...짜증 나! 나 진짜로 갈래요!! (뒤돌아서 집으로 감)

박 군: 이 드라마는 차암...참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이면서도...뭔가 꿀을래야 꿀을 수가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 내가 과연 이 드라마를 꿀을 수 있을까?

--6화 끝

© 2009 DYNA SYSTEMS <RESET 소사이어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다이나시스템이 가집니다.>